

마음맑음 선생님이 되어 가는 시간, 지금은 ing 중..

저는 보육교사로서 18년째 아이들과 함께하며 국공립 원장을 꿈꾸며 하루하루의 보육현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보내며 뉴스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부터 1년 반쯤 그 학부모님과 만남이 저의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내가 주차장으로 가는데 힘들겠죠? 가방을 들어줘야죠”

“우리 아이가 센터 수업이 있는 날 왜 행사를 계획하세요?”

“어린이집 폐원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구청장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선생님이 밝고 다니는 곳이 우리 친정아버지 땅 건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죠”

이외도 수없이 많은 무리한 요구와 협박들이 이어지며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 들을 들어주면 그 아이가 졸업하기를 바라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시다.

내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서 선택한 나의 삶과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켜오던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보육교사로서 우리도 존중받고,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직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부모님과 문제들로 인해, 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힘든 나날 속에 빠져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순간들을 내려놓는 순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센터 담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내 마음을 이야기 나누고 해결책을 찾고 싶어 담뽕 홈페이지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며 망설이기를 수십 번...

마음을 굳게 먹고 담뽕에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담풀 관계자의 전화로 시작된, 지쳐있던 내 마음과 보육활동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법률적인 조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보육교사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고, 제일 많이 변화를 겪은 것은 저의 마음이 이었습니다.

전화로 시작된 50분의 심리상담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줌에 제가 그동안 느끼던 어려움과 한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던 제 마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심리상담 선생님의 말씀 중에 “아이를 사랑해서 그 무리한 요구들도 묵묵히 이겨냈던 선생님은 참 괜찮은 선생님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왜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택했는지 처음 보육교사가 되었던 그날로 돌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설레던 순간, 아이들도 웃고 저도 한없이 즐거웠던 그날의 한 장면이 떠오르며 마음속에 무언가 반짝하고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며 제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간섭을 당연시했다면, 이제는 저 자신과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요구를 정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스스로가 저의 보육현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불합리한 상황에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제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직업에 대한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두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직업이지만, 동시에 저희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권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 자신과 동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마음 맑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을 토닥토닥해주신 담풀의 심리상담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바닥만 보면 걷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서 있습니다.